

심는 그대로 거둔다

We Reap Just As We Sow

고린도후서 9:6-11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3월 18일 설교

⁶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⁷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⁸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⁹기록한바 저가 흠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¹⁰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¹¹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헌금을 열심히

제가 대학 시절 사 년 동안 다닌 교회는 유달리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였습니다. 헌금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설교 때 참 자주 나왔고 헌금 종류도 많았습니다. 소원헌금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미리 드리는 감사헌금인데 소원이 안 이루어진 사람은 헌금을 돌려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연말마다 나누어주는 개인별 헌금 명세서였습니다. 교인 이름을 가나다순으로 죽 쓰고 한 해 동안 주일헌금 얼마, 감사헌금 얼마, 십일조 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자동차헌금, 하여간 그 해에 한 헌금 액수를 아주 자세하게 적어 온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걸 보고 아무개 장로님이 돈을 많이 버시는구나, 아무개 집사님은 올해 사업이 좀 안 좋았네, 그런 농담도 하곤 했습니다. 저야 학생이니까 별 부담이 없었지만 교회를 이끌어 가던 장로, 집사, 권사 이런 분들은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분들이 교회를 안 떠나고 계속 충성했으니 정말 하나님 은혜지요. 헌금을 강요한다고 늘 비판하던 제가 그 교회를 안 떠나고 사년 내내 다닌 것도 거의 기적에 가까운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교회는 헌금을 강조하는 만큼 헌금 순서도 거창했습니다. 헌금 시간이 되면 전 교인이 일어나 주보에 적혀 있는 성경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삼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 구절을 줄줄 읽니다. 그 교회 사 년 다닌 게 증거가 됩니까?

설교 시간에 헌금 이야기 자주 한다고 꼭 나쁜 건 아니지요. 헌금은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헌금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헌금 시간에 헌금과 관련된 성경구절을 함께 읽는 것도 바른 헌금을 드리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고 읽느냐 하는 거지요. 헌금에 관련된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면 헌금도 엉터리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나도 안 즐겁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오늘 본문은 헌금 가운데서도 구제헌금에 관해 말씀하는데 우선 이 헌금을 농사에 비기고 있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했습니다. 심고 거두는 일반 법칙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심으면 많아진다는 법칙입니다. 씨를 왜 심습니까? 양을 늘이려고 심습니다. 그렇지요? 조금 심어 많이 거둡니다.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를 거둡니다. 하나 심어 하나가 난다면 뭐 하러 심겠습니까? 씨 하나가 수십, 수백 배를 맺는다, 이거 하나님이 자연에 두신 참 놀라운 법칙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법칙을 바탕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같은 좋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가운데 또 중요한 하나는 심는 것하고 거두는 게 같다는 점입니다. 심은 그게 나지 다른 게 나지 않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이것도 성경이 가르치는 법칙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 6:7). 사과를 따면서 콩을 심었더니 사과가 나더라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놀리는 것입니다.

심으면 많아지고, 똑같은 게 많아진다는 하는 이 두 가지 법칙에 오늘 본문은 하나를 추가해 줍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적게 심어 많이 거두는 그 법칙하고는 다른 법칙입니다. 심는 양에 따라 거

두는 양도 달라진다. 다시 말해, 거두는 양은 심는 양에 비례해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를 심어 백 배를 거둔다면 둘을 심으면 이백 배, 셋을 심으면 삼백 배가 됩니다. 그러니 많이 거두고 싶으면 많이 심어야 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거 법칙 맞습니까? 돈이 많으면 부자고 없으면 가난하다, 이 말하고 뭐가 다른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왜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여기 중요한 믿음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특히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왜 자비입니까? 하나를 심었는데 백 개가 열렸으니 자비지요. 창세기에 보면 다른 건 안 그런데 과일과 채소를 언급할 때는 꼭 “씨”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실 때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셨더니 그대로 되어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창 1:11-12). 나중에 식물을 사람의 음식으로 주실 때도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음식으로 주마” 하셨습니다 (창 1:29).

왜 이렇게 씨, 씨 합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씨 있는 걸 먹고 삽니다. 씨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먹을 게 벌써 바닥이 나 다 죽었겠지요. 그런데 곡식마다 과일마다 씨가 있어서 하나만 심어도 백 개가 더 생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드신 법칙이다 보니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이걸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요?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와 함께 풍성한 자비가 거기 담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디 있습니까? 심으면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약속대로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심었는데 싹이 안 나고 열매가 안 맺힌다면 하나님의 법칙이 변질된 거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심으면 반드시 맺히게 해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를 심으면 백 배로 맺히는 것도, 심은 것과 같은 종류가 맺히는 것도, 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심어 백이 난다면 둘을 심으면 이백이 나는 게 당연하지요?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게 왜 당연해야 됩니까? 하나를 심었는데 백이 나고 둘을 심었더니 오히려 열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그렇지요? 이백이 납니다. 저절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심는가?

오늘 본문은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헌금 가운데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 헌금입니다. 내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인데 이게 농사짓는 것과 같습니다. 잘 심으면, 내가 심은 것과 똑같은 그걸 푸짐하게 거둡니다. 또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거두는 것도 많아집니다. 이 법칙이 구제헌금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럼 문제는 심는 건 뭐고 거두는 건 또 뭐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헌금이니까, 하나님께 돈을 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은 같은 종류라 했습니다. 그러니 돈을 드리면 돈을 거둡니다. 돈 드리는 게 심는 거라면 거두는 건 나중에 내 지갑이 백배로 두둑해진다는 말이겠지요. 제가 대학 때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들 많이 가르칩니다. 정말 그렇더라고 간증하는 분들도 가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 하는지 잘 살펴봅시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한 다음 뭐라 말씀합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 내는 게 심는 거라면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헌금은 적게 심는 거지요. 즐겨 내는 건 많이 심는 겁니다. 그런데 심는 건 돈 같은데 거두는 건 뭔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돈을 심으면 거두는 것도 돈이라야 되는데 그런 말은 없고 대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해!” 안 하시고 사랑의 징표로 돈을 듬뿍 안겨 주실 건지, 그건 아직 모릅니다.

심나 거두나?

그 다음 절을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 “모든”이라는 말이 다섯 번 거꾸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네 번이지요? 원문은 다섯 번입니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모든 일”에, 항상, 곧 “모든 시간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결과로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모든 시간에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고 그 결과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구제헌금을 드리는 일은 착한 일에 속합니다.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건 구제헌금을 인색하게 또는 억지로 안 내고 즐겨 내는 거겠지요? 구제헌금을 드리는 일은 씨를 심는 일인 줄 알았는데 모든 풍성함이 씨, 곧 원인이고 이웃을 돕는 구제를 열매처럼 거두게 됩니다.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모든 분야에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되면 그게 너그러운 연보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분야에 모자람이 없게 되는 건 조금 전에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는 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면 그 결과 너그러운 연보,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겨 내는 구제헌금이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씨를 심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심고 거두는 건 우리 일입니다. 그러니 심는 건 우리의 풍성함, 모든 일에 모든 시간에 모든 것이 풍성한 이게 우리가 심는 씨가 되고 그걸 심어 맺는 열매가 바로 이웃을 돕는 구제 헌금이 됩니다.

거두는 것

좀 복잡하지요? 심는 게 뭔지 조금 있다 다시 생각하고 거두는 건 뭐라 하는지 보겠습니다. 심는 거랑 거두는 게 같은 종류라 했으니까 거두어 보면 내가 뭘 심었는지도 알겠지요.

7절에서는 하나님이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백배로 넘치는 사랑을 주십니다. 그럼 내가 심은 것도 사랑이려야 되겠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돈은 누구나 갖고 싶어 합니다. 주기 싫습니다. 그런데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웃을 구제하는 헌금을 드리겠습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받고 적게 심으면 적게 받는다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럼 내가 많이 드린 겁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록한바 저가 흠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흠어 가난한 자들에게 준 건 구제헌금을 한 것입니다. 원인이지요. 결과는 뭘니까?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의가 뭘니까? 하나님이 잘 했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특히 구제헌금은 평균케 하는 원리를 실천하는 거니까 참 의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 했다 하시고 그걸 영원히 기억해 주십니다. 본문 10절에서는 의를 아예 열매라 부르고 있습니다. 심을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걸 심어 거두는 의의 열매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 주십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열매가 되어 맺힙니다. 내가 한 감사가 아니고 이웃이 한 감사, 곧 내 구제헌금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풍성함이 원인이 되어 구제헌금의 열매를 맺었는데 그 헌금이 또 씨가 되어 열매를 맺습니다. 씨하고 열매가 돌고 돕니다. 내 이웃이 감사의 열매를 맺은 걸 보니 내가 심은 것도 감사였던 모양입니다. 맞습니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하나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은 내가 감사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드렸겠습니까? 내 감사를 심어 보다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지금 구제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헌금은 내가 내 돈을 나 아닌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는 행위입니다. 이걸 심고 거두는 원칙으로 설명을 하는데 심는 건 돈이 아니라 합니다. 거두는 것도 물론 돈이 아닙니다. 돈을 내는 손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사랑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담았습니다. 그러니 헌금이 헌금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은혜지요. 은혜를 주셔야 사랑도, 의도, 감사도 담을 수 있습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면 안 됩니다. 즐겨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즐겁게 드릴 수 있습니까? 남 주는 걸 즐기려면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있어야 드릴 것 아닙니까? 없는 사람은 즐겨 못 드립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모든”이라는 말을 다섯 번이나 써 가며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모든 시간에, 모든 것이 넘치게 하신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돈도 가장 많고 시간도 가장 여유 있고 몸도 가장 건강하고 출세도 가장 멋지게 하고 그래야 됩니다. 10절에서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했는데 원문은 “너희에게 씨를 주시고 또 더 많게 해 주시고” 하는 말입니다. 많이 심을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뜻인데 부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자로 만드십니까? “모든 은혜”를 주셔서 부자로 만드십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면 “모든 돈” “모든 여유” “모든 성공”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되려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를 위해 자기를 죽이시고 대신 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의 은혜지요. 이번 주 요절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고후 8:9). 은혜를 받으면 깨닫습니다. 내가 부자구나, 내가 다 가졌구나, 모자라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주셨으니 이웃하고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구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 헌금을 드립니다. 많이 받으면 많이 드립니다. 은혜를 심고 은혜의 열매를 거둡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빌 4:10-19).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어디서 한 말입니까? 감옥에서 한 말입니다. 이십일 세기 미국 감옥에서 한 말이 아니고 이천 년 전 로마제국 감옥에서 한 말입니다. 똥 닭을 휴지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 가졌다 합니다. 왜요? “내가 궁핍하므로 하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한다는 말이 오늘 본문 8절의 “넉넉하여” 하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만드시는 부자입니다. 가진 게 있든 없든 필요한 건 다 가졌다든 걸 깨닫는 마음입니다.

성령으로 심자

돈을 드리는 게 헌금이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에 따라 심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 6:8).

돈은 그저 수단일 뿐입니다. 이 돈으로 좋은 것을 많이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안 좋은 것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헌금 안 하고 다른 데 쓴다는 말이 아닙니다. 똑같이 헌금을 하는데도 마음에 따라 좋은 것을 심어 좋은 걸 거둘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심어 나쁜 걸 거둘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돈이 아깝지요. 그렇게 인색하게 또 억지로 내는 것, 남 눈치를 보고 드리는 돈, 나를 과시하기 위해 내는 돈, 남에게 칭찬 들으려고 내는 돈,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내 이익을 위해 하는 거짓 헌금, 그리고, 돈을 더, 왕창, 거두고 싶은 마음으로, 투자심리, 투기심리로 내는 돈, 이런 건 헌금이라고 내긴 하지만 좋은 걸 심지는 못합니다. 육체를 위해 돈을 심고 욕심을 심고 거짓을 심고 허영을 심어, 썩어질 돈 썩어질 명예 썩어질 것들을 잔뜩 거두어 함께 썩어버릴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한테 십일조 안 내면 벌 받는다 겁주고, 직분을 받으려면 돈을 내라 압력 넣고, 돈을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백 배로 채워 주신다고 엉터리로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썩을 걸 심어 썩을 걸 거두겠다는 말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헌금 내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까? 쥐어짜는 겁니까? 아니지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왜 모르느냐, 은혜를 받았으면 그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얼른 심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많이 많이 심어서, 백배로 푸짐하게 거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고, 감사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드리는 돈은 참 연보가 됩니다. 성령을 위해 심은 일이지요, 그런 사람은 성령의 인도 아래 백배의 결실 곧 영생의 열매를 거둡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제 대학 시절 교회 어른들이 귀가 따갑도록 헌금 헌금 하는데도 다른 교회 안 가고 남아서 헌금을 많이 드린 걸 보면 은혜를 참 많이 받은 분들입니다. 백 불 헌금해 만 불 못 받았는데도 계속 드렸습니다. 은혜가 가능하게 한 겁니다. 목사가 그렇게 쥐어짜지 않았어도 아마 많이, 어쩌면 더 풍성하게, 드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헌금도 그래야 됩니다.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것이지만 돈을 심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고 나니 남이 볼 때는 무리한다 싶어도 나는 즐겁게 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사랑을 더 받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니 감사의 열매가 백배로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드리니 먹고 살 걱정도 안 됩니다. 왜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 그건 다 책임져 주마 하셨거든요. 내가 의를 심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 우리의 의보다 백 배 풍성한 의를 열매로 주십니다 (막 10:30).

돈을 드릴 때마다 돈을 심지도 말고 거둘 생각도 하지 맙시다. 정말 중요한 것은 첫째, 나를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독생자를 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죄를 씻기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이거 알면 같은 헌금을 해도 성령을 위해 심고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됩니다. 이왕이면 더 거

두고 싶어 더 많이 드립니다.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의를 담아 드리니 하나님 사랑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심으면 많아집니다. 심은 것과 같은 걸 거둡니다. 많이 심을수록 많이 거둡니다. 간단히 줄이면, 심는 그대로 거둡니다. 그러니 우리 가만있지 말고 심읍시다. 심되 썩을 것 말고 영원히 가는 귀한 걸 심읍시다. 이왕이면 많이, 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잘 거두고 많이 거두어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맛도 보고 남한테 자랑도 하면서 멋진 예수쟁이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권수경 목사)